

한전 삼천포화력본부 안전보건 초일류기업으로 인증



한전 삼천포화력본부(본부장 이영철)는 5월 4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수준 “초일류기업” 인증을 받아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이홍지) 주관으로 한전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삼천포화력본부는 '93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예방점검과 일상 순회점검으로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활동에도 주력,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전 삼천포화력본부는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서별 안전주변 책임제 운영, 분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급 점검반장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직책별로 전문기관에 위탁 및 통신교육을 시행하고, 영상교육 기자재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 왔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한전 삼천포화력본부는 “안전확보 없이 미래는 없다”라는 이영철 본부장의 확고한 안전경영 방침과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관리활동을 성실히 전개해 나가고 있어 “안전경영 초일류기업 인증” 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산업안전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안전정책방향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토론회가 5월 14일 산업안전공단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노동부, 학계, 민간재해예방단체, 신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산업안전반, 공단 기준제정위원회(안전분야), 사업장 안전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는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용수 교수가 “산재다발 중대위험설비의 근원적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강수현 이사장이 “산업안전 취약부분 중점지원 및 재해예방 민간단체 역할”, 삼성전자(주) 구민식 이사가 “노·사협력에 의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 방안”, LG환경안전연구원 성준용 원장은 “기업의 산업안전 선진화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뜨거운 토론이 전개되었다.

재해사진전시회 개최

지난 4월 30일에 대구·경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주관지회의 4개기관의 주최로 대구 반월동 삼성금융프라자 광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진을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중구청장을 비롯하여 구해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주관지회 사무국장 등 각계 안전관련 단체장의 참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 위반사업장 실태

노동부는 5월 19일을 기준으로하여 '97년부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 적용의무 위반사업장을 발표하였다. 적발된 사업장은 총 134개 현장으로 '97년에는 99개현장, '98년은 27개현장, '99년은 현재까지 8개 현장으로 위반사업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이 건설사업장에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반 사항으로는 목적외에 사용하는 사업장이 총 60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였으며, 안전관리자 배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100억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47건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97년도에 위반사례의 40.4%에서 99년 위반사례의 12.5%로 적발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외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미사용 사업장도 14개현장 이었고, 표준안전관리비 자체를 계상하지 않는 사업장도 8개로 전체 위반사업장의 6%를 차지하였다.

